

癸巳年 건설업계 경영 화두-‘혁신’과 ‘내실 다지기’

조 철 현 |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장

혁신과 내실 다지기. 올해 건설업계의 경영 화두다. 품질·원가 혁신과 내실 다지기를 통해 장기 불황의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구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장기 포석도 깔려 있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지난 한 해를 보낸 건설업계 최고 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혁신과 내실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와 해외 건설시장 경쟁 과열로 힘겨운 한 해가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업체마다 내실화와 수익성 제고를 통한 ‘생존’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 대신 내실 다져야 할 때”

국내 대다수 건설기업들은 끝나지 않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의식한 듯 올해 경영의 초점을 ‘내실 경영’에 맞췄다. ‘비상 경영’, ‘생존 경영’, ‘수익성 중시 경영’ 등으로 표현되는 내실 경영은 임직원과 시스템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서도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해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신년 구상에 담았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내실 경영 속에서도 新성장 동력 확보와 핵심 역량 확대는 빼놓을 수 없는 화두”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올해 초 시무식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해 못지않게 힘들 것 같다”며, “핵

심 상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고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미래 성장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조직을 슬림화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경영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연주 부회장은 ‘지속 혁신을 통한 글로벌 초일류 도약’을 올해 경영 방침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인재 개발, 최고의 전문성 축적 및 활용,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앞으로 3년 동안 혁신을 가속화해 2015년에는 반드시 글로벌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며, “조직 혁신을 통한 성장은 세계 최고의 인재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 정보

다. 그는 이어 “마케팅과 사업 수행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와 정보, 개인 역량, 기술 등 모든 경영 요소를 시스템에 담고 공유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독려했다.

대우건설은 창사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비상 경영의 해’로 정했다. 계사년 새해를 기업의 미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기로 설정하고, 일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종욱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국내외 경기 전망과 기업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며,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해 원가 혁신 활동 강화와 현금 유동성 개선, 조직·인력의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부실 축소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EPC 이노베이션(혁신)’을 올해 경영 키워드로 내세웠다. EPC 이노베이션이란 효율(efficiency)·절차(process)·비용(cost)에 대한 혁신을 뜻한다. 서 사장은 “EPC 이노베이션 활동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만 조직 문화에 스며들어 혁신이 일상화·내재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올해 경영 화두로 ‘비용 혁신(cost innovation)’을 강조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

면해 있다”며, “따라서 올해는 재무 유연성 확보와 위험 관리 차원에서 현금 중심의 사업관리와 수익성 위주의 수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허 사장은 사업 수행 역량 강화, 원가 혁신, 비용 절감, 현금 흐름 및 수익성 증시 경영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포스코건설 정동화 부회장은 ‘건설업 본원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개발을 통한 내실·혁신 경영’을 올해 화두로 꺼냈다. 그는 “올해 주택 경기를 비롯한 경영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형 성장보다 체질과 체력을 강화해 내실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도 외형 확대보다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 성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윤 부회장은 “올해는 불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 억제, 무수익 자산 처분 등 현금 흐름 관리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SK건설은 올해 경영 화두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실행을 제시했다. 수익성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운영 효율성 추구, 사업 모델 안정화를 위한 新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전략 방향

으로 정했다. ‘규모의 경제’ 대신 원가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은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은 “회사 생존을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 선결 과제”라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유동성 확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현재의 수익 구조도 혁신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본업 경쟁력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갖춘 건설한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원일우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새해 경영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사업 강화로 시장 확대 도모

건설사들은 내수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에도 해외 사업에 힘을 쏟을 태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 같다. 중동과 동남아는 물론 중남미·중국·아프리카·유럽 등 전 세계가 주요 공략 타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해외건설 105억 달러 수주 여세를 몰아 올해도 해외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경영 목표를 ‘글로벌 건설 리더’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해외 시장 조사와 영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거점 지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도 중동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동·서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수현 사장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에 맞춰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다변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존 플랜트사업본부를 플랜트사업부와 원자력사업부, 발전사업부로 세분화했다. 해외사업의 핵심인 플랜트를 각 부문별로 전문화해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외 마케팅 부서를 합친 글로벌 마케팅실도 만들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지에서 해외사업 인력을 키우는 등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텃밭인 중동·동남아에서 토목·플랜트뿐 아니라 민관협동사업·병원사업 등 사업 기회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알제리 등 기존 거점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중남미와 남아프리카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또한, 플랜트 외에 토목·건축 공사나 도시개발사업 등도 전개해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과 설계, 시공은 물론 자금 조달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건설산업용·복합으로 해외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2011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이 대표적인 성과다.

GS건설도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전문성과 본부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해외 영업 조직을 해외영업본부로 통합한 데 이어, 올해는 동남아·중동 지역의 구매·공무를 맡을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마련했다. 미주와 아프리카, CIS 등 신시장 공략을 위해 미주 영업 총괄 임원을 영입하고, 현지 영업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올해 수주 목표 12조원 중 6조원을 해외에서 따낼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개도국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 상품을 철강, 발전, 친환경 신도시 복합 개발로 정하고 수주 확대를 위해 포스텍

과의 협업을 통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영업실을 신설했다. 기존 토목·건축·플랜트 등 사업본부별로 나뉘어 있던 해외영업부문을 통합했다. 해외영업실에 각 부문의 영업 역량을 모아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진중공업 역시 건설부문의 노하우와 기술을 십분 활용해 해외사업 경쟁력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플랜트 설비 생산을 위한 설비 생산 기지 등 완벽한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플랜트 사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핵심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新성장 동력 발굴에 ‘인간힘’

일감 확보를 위한 新성장 동력 발굴도 올해 건설업계의 주요 과제다. 현대건설은 자원개발 연계사업, 물환경 수처리, 그린 스마트빌딩, 철강 플랜트, 원전 성능개선사업, 민자 발전사업 등을 6개 新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핵심 기술을 확

경영 정보

보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그동안 공들여 왔던 민자 발전·헬스케어 등 신사업 성과를 올해 안에 이루기로 했다. 정연주 부회장은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리 마케팅을 통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장해 나아가 한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은 국내외 민자 발전사업과 석유화학 플랜트 등 개발형 투자사업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운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존의 단순 도급형 수주에서 벗어나 민자 발전, 석유화학 분야 등에 대한 디벨로퍼 사업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도 미래 성장을 위해 플랜트, 해외, 신사업 등 성장 동력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창균 사장은 “차입금 축소, 미분양 해소 등과 병행해 플랜트와 해외사업 등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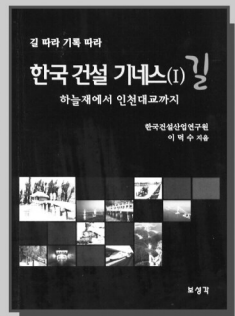
SK건설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오일 샌즈(Oil Sands) 시장 진입 기반을 구축하고 그룹계열사 시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활용해 O&M(운영&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계획이다. 최광철·조기행 SK건설 사장은 “최근 3년 간 양적 질적 성장을 토대로 올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칠 것”이라며, “투자 구조 개발과 PF 사업 지원을 통한 고수익 프로젝트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새로운 수익형 모델인 민자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은 현재 시공 중인 국내 최초 민자 철도 신분당선의 2단계(정자~광교) 구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다. 이 사업을 교두보로 올해 3단계(강남~용산) 구간이 착공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의 기술력으로

총 40km에 이르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두산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도 노리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 특수교 제조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양 구조물 및 기자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시장인 해양 모듈, 철 구조물, 해저 기자재 제조 분야 진출은 업무 영역 다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원자력 발전사업과 물산업 진출을 장기 계획으로 세웠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기계·구조·전기·공조기기 분야에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을 보유 중이다. 미국기계협회(ASME) 인증도 획득했다.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물산업과 관련해서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CERIK

도·서·안·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